

高麗時代

癸酉銘青銅八部衆立像

崔 聖 銀

一. 머리말

釜山市立博物館에는 慶南 晉陽郡 鳴石面 內栗里의 절터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高麗時代의 神將像 한 점이 寄託 陳列되어 있다. 이 像은 불교조각의 主流을 이루는 불상이나 보살상은 아니지만 臺座에 銘文이 음각되어 있어 고려시대조각사 연구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바가 크다. 특히 명문에는 癸酉라는 干支를 비롯하여 施主者名, 地名 등이 적기되어 있어 神將像의 제작연대 규명은 물론 당시의 불교신앙 및 사회상에 대한 이해증진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 癸酉銘神將像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간략한 작품소개 정도가 있을 뿐 아직 본격적인 論議가 없�은 실정이다^①. 따라서 本稿에서 는 이 神將像의 명문본석을 통하여 이 像의 造像背景을 살펴보고 이어서 양식적 특징과 조성연대를 규명함으로써 이 像이 지니고 있는 美術史的 내지는 佛敎史的 意義를 부각시켜 보고자 한다.

그러나 다루고자 하는 像 자체가 작고 또 명문도 단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여러 사실을 抽出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무리와 誤謬를 범했을지도 모르겠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는 此止을 바라는 바이다.

二. 造成背景(銘文分析)

癸酉銘神將像의 銘文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이 像의 造成時期라고 생각되는 高麗前期의 시대적 상황을 요점만이라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조성배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高麗時代는 太祖以來 惠宗, 定宗代까지도 豪族聯合勢力에 눌려 王權이 확립되지 못하였으나, 光宗代에 와서 과거제도와 奴婢按檢法 등 一連의 정치개혁을 통하여 호족세력을 억압함으로써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어느 정도 갖추어지게 되었다^②.

宗敎的인 側面에서도 고려초기는 변화가 많았던 時期였다. 豪族들과 밀착되었던 禪宗은 왕권강화를 위한 光宗의 호족억압정책으로 인해서 그 위세를 잃고 대신 華嚴宗과 法相宗 등 敎宗이 王室의 호응을 얻게 되었다^③. 光宗이 開京에 歸法寺를 創建하여 華嚴宗의 中心道場이 되게 하였던 것은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華嚴宗 僧侶인 均如나 正秀가 光宗의 친제왕권강화와 깊은 관련된 人物이었다는 사실은 근래 활발히 추진되어 온 光宗代에 대한 研究결과로 점차 밝혀지고 있다^④. 成宗은 光宗이 닦아놓은 터전위에 유교적 정치이념으로 제도적 정비 를 이루었다. 이 시기에 다소 주춤하였던 佛敎界는 다시 顯宗代에 와서 法相宗을 중심으로 화려한 귀족불교문화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게 되었다고 이해된다.

정치적인 時代區分과 美術史的인 시대구분이 항상 일치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미술이 나름대로의 고려적인 특성을 지니기 시작한 것은 중앙집권적 체제가 완비되고 왕권이 보다 강화되었던 一〇세기 중엽 이후부터라고 생각된다^⑤. 本稿의 癸酉銘神將像은 王權과 호족세력간의 끈임없는 갈등속에서 왕권이 강화되어 가던 어느 시기에 조성된 作品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銘文分析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造像背景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癸酉銘神將像은 전체크기가 四〇、九cm 가량 되는 靑銅彫刻으로 前述한 바와 같이 현재 부산시립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개인 소장품이다(圖 1)。神將像의 四각대좌는 寶相華文이 三면에 透刻되어 있으며 앞면은 銘文을 쓰기 위해서 施文하지 않았던 것 같다(圖 2)。이 곳에는 다음과 같은 銘文이 음각되어 있다。

白州 龔 直
卜士 順 戊

特爲

聖壽 天

長願 以

妻氏 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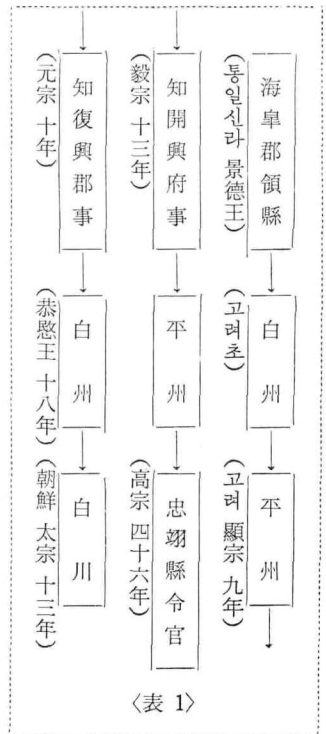
願鑄 成

癸酉 九月 日記

이 내용은 白州의 卜士 順戊가 癸酉年 九月에 王의 天壽를 빌면서 妻와 함께 發願하여 鑄成하였다고 풀이할 수 있다⑥。이 짧은 발원문만으로 神將像의 정확한 제작연대를 알 수 없지만, 造像施主者의 직업과 白州라



圖 1. 癸酉銘靑銅神將立像, 高40.9 cm 高麗時代, 釜山市立博物館



는 地域사이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그年代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白州는 朝鮮時代부터 白川이라고 불렀는데, 開州, 貞州, 鹽州와 함께 高麗 王建世系와 관련이 깊은 王氏勢力의 근거지라고 추정할 만한 곳이 기도 하다⑦。즉 太祖王建的 祖父인 作帝建이 西海龍女를 아내로 맞아 돌아올 때, 白州의 正朝 劉相晞등이 開州(開城), 貞州(豊德), 鹽州(延安), 白州(白川)의 四州와 강화, 교동, 하음등 三縣의 地方民들을 거느리고 永安城을 쌓고 궁실을 지어 주었다는 기록에서 王建의 先世가 이 지역의 호족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⑧。그런데 白州는 表 1)에 보듯이 시대에 따라 地名이 바뀌어 白州로 불리운 것은 고려초에서 顯宗 九年(一〇一八年)까지와 恭愍王 八年(一三五九年)부터 朝鮮 太宗 一三年(一四一三年)까지의 두 기간뿐이다。그러므로 이 地名을 통 해서 어느 정도 造像時期의 범위가 좁혀질 수 있겠는데, 양식분석에서 밝혀지듯이 前者의 시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造像發願者인 順戊는 卜士라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卜博士를 줄인 表記이거나 아니면 그냥 짐치는 자신의 직업을 가리켰을 수도 있겠는데, 대체로 나라의 天文曆數를 다루는 太卜監의 관리였다고 생각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그러므로 造像發願者의 신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고려시대의 卜業과 卜者들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려시대의 卜業에 대한 기록은 과거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한 光宗代

부터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즉 光宗 九年(九五八年)에 실시된 과거에서 進士科와 明經科에 各各 二人과 三人이 급제했는데 이때 卜業에도 二人이 及第했던 것을 보면 卜者들의 수요와 비중이 작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⑩. 卜者들의 신분과 배경에 관해서는 『高麗史』에 실린 人物에서 毅宗代의 榮儀와 忠烈王代의 伍允孚의 記事가 참고된다.

먼저 毅宗初에 內侍使令이었던 卜者 榮儀는 司天監(太卜監의 後身)에 있던 尙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인 尙이 섬에 유배되었을 때 섬의 逆民에게서 낳았다고 한다. 그는 왕에게 天帝釋과 觀音보살을 섬겨야 壽命이 연장된다고 하여 靈通寺, 경천사를 포함한 다섯 절에 빌게 하였으며, 王으로 하여금 보살과 천제석의 畫像을 寺院에 나누어 빌게 하였다. 그는 또 安和寺에 제석천과 觀音보살 및 수보리의 肖像을 만들어 승려들을 모아 보살명호를 부르는 連聲法會를 여는 등, 王의 측근에서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 같다^⑪.

다음에 忠烈王代에 유명했던 卜者 伍允孚는 대대로 太史局의 관리를 지낸 집안의 자손으로 復興郡 출신이었다. 그가 占을 잘 친다는 소문이 멀리 元의 世祖에게 전해져서 燕京에까지 불려갔으며 벼슬은 僉議贊 成事に 이르렀던 人物이다^⑫.

前述한 두 사람은 모두 父親으로부터 물려받은 세습적인 卜者이며 특히 伍允孚의 경우, 出身地가 復興郡이라는 사실은 卜士 順戊의 出身背景과 관련지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즉 復興郡은 白州의 異名이므로 이 神將像의 施主者인 順戊와 伍允孚는 같은 지역출신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貞州, 開州, 鹽州와 함께 王建世系의 勢力根據地였던 白州에서 세습적인 卜者들이 많이 배출되었을 가능성까지 시사해 준다. 뿐만 아니라, 中央의 王室에서 極秘에 속하는 국가의 大事를 점치는 卜士들의 경우, 王室과 同鄉人인 것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伍允孚가 忠烈王의 측근에서 점괘에 따라 간곡히 왕에게 忠言을 올렸다는 기록에서, 王室과 卜者와의 긴밀한 관계뿐 아니라 卜者의 정치적 기능과 사회적 지위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 다루고 있는 神將像의 造成發願者인 順戊 역시, 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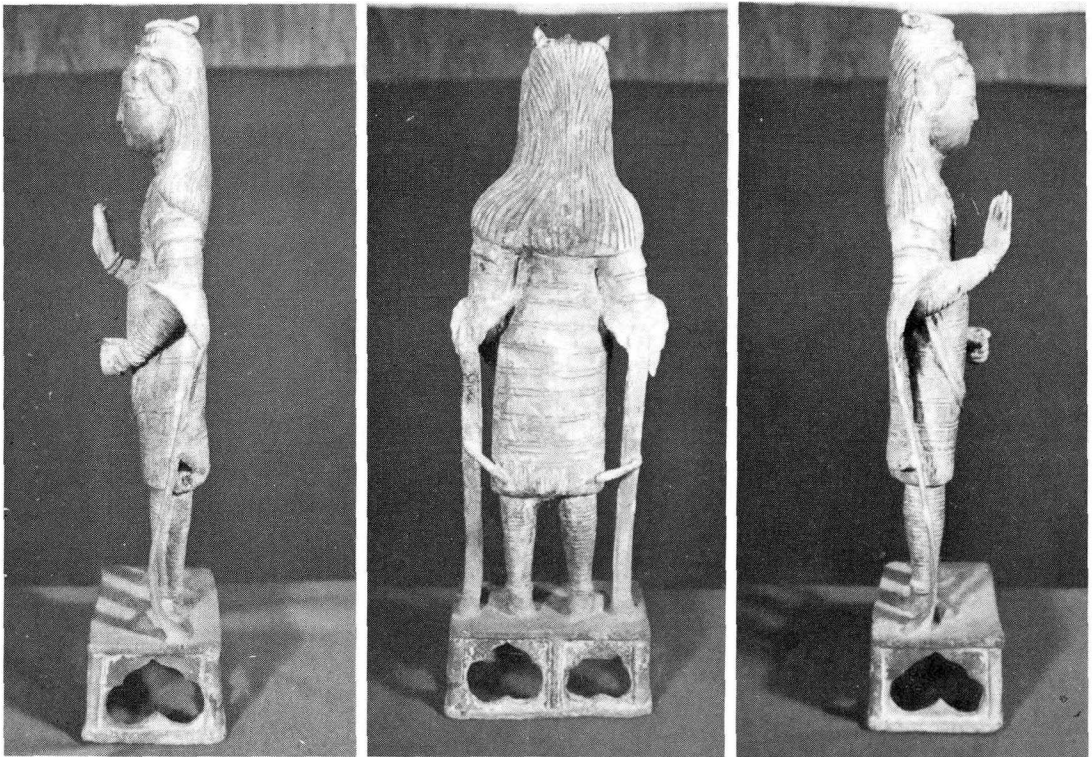


圖 2. 圖 1의 背面과 左·右側面

와 함께 王의 天壽를 빈 점이나 白州 출신의 卜士인 점 등으로 미루어 王室과 관련이 있었던 세습 卜士가 아니었다 여겨진다.

그밖에 주목되는 문제는 占卜과 佛敎와의 밀접했던 관계이다. 卜者들은 점괘가 불길하면 소재도량을 배풀고 佛菩薩이나 제석천개 기도를 하도록 하는 등, 다가올 재앙을 佛法的의 위력으로 막아보려 하였다. 그러므로 占卜은 佛敎가 祈福化하는데 자연히 한 몫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명문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첫째 造像發願者인 順戊가 고려초 혹은 麗末鮮初의 두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실존했던 卜業을 天職으로 삼는 卜者였다는 사실과, 둘째로 그가 王室과 연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三、神將像의名稱

이 癸酉銘神將像은 일찌기 二支神像 가운데 호랑이(寅)인 眞達羅라고 소개된 바 있으나^② 여기에 대해서는 圖像面에서 볼 때 再考가 요망된다. 이 像이 지닌 外形上의 특징으로 미루어 보아 아무래도 眞達羅보다는 八部衆의 하나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신장상의 現狀과 함께 명칭을 밝혀 보기로 하겠다.

神將像은 전체크기가 四〇、九cm인데 대좌와 身部를 따로 주조하여 붙인 흔적이 있고, 양 팔에서 대좌 위까지 내려오는 天衣 역시 팔꿈치소매에 이어 붙였다. 그러므로 이 조각은 臺座와 身部、兩 天衣의 네 부분으로 나뉘어진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像의 두드러진 특징은「사람의 얼굴에 동물머리관(人面獸冠)」을 쓴 점이라 할 수 있다. 짐승은 큰 눈을 부릅뜨고 털이 눈썹같이 말린 것이 빨갛아 보이는 데, 양 송곳니와 앞이 빨로 神將像의 얼굴을 물고 있다. 이 동물은 華嚴寺 四獅子三層石塔의 獅子(圖 3) 및 고려시대 세워진 獅子頻迅寺址 四獅子石塔(一〇二二年作)의 獅子와 같은 사자로 봐야 할 것이다. 頭部의 뒷면은 사자의 털을 표현한 듯, 가는 종선이 촘촘히 선각되어 사

자빈신사지 석탑내 석상의 뒷면과 비교가 된다(圖, 15)

얼굴은 풍만하고 커다란 눈과 짧은 인중, 미소면 작은 입, 그리고 통통한 뺨과 턱은 月精寺석조보살상을 비롯한 고려시대 조각에서 흔히 보이는 顔面表現의 定型이라고 할 수 있다. 부피감이 미약한 평면적인 몸매 감을 입었으며 그 표면에는 원형, 꽃, 사선, 횡선의 무늬가 기하학적으로 음각되었다. 그리고 兩 팔꿈치에 나뭇잎같은 장식의 달린 점이 눈길을 끄는데, 이것은 통일신라시대의 八部衆彫刻에서 갑옷과 연결된 팔꿈치부분의 소매자락이던 것이 점차 圖式化하여 고려시대에는 장신구처럼 표현되었던 것 같다.

한편 손은 발에 비해 크게 조각되었으며 오른손으로 施無畏印과 같은 印相을 짓고 왼손에는 持物의 손잡이를 쥐고 있는데, 손잡이로 미루어 볼 때 持物은 寶劍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좌의 前面에는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銘文이 二八字가량 음각되었고 좌우측면과 뒷면에 寶相華文이 투각되었다.

앞에서言及했던 바와 같이, 癸酉銘神將像이 지닌 대표적인 외형상의 특징은 사자형의 冠帽를 머리에 쓰고 있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신장상은 도상면에서 가장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八部衆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된다. 八部衆은 대체로 塔의 基壇部에 浮彫로서 조각되었는데 그 중에서 사자를 머리에 쓴 神將이 표현된 대표적인 예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① 石窟庵八部衆(圖 6)
- ② 慶州南山洞西三層石塔八部衆
- ③ 陳田寺址三層石塔八部衆(圖 4)
- ④ 崇福寺址三層石塔八部衆
- ⑤ 禪林院址三層石塔八部衆
- ⑥ 普願寺址五層石塔八部衆(圖 5)
- ⑦ 國立中央博物館 앞뜰의 八部衆
- ⑧ 國立慶州博物館 회랑의 八部衆

이들 塔浮彫와 석굴암 조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獅子를 머리에 쓴 神將은 塔의 기반부에 흔히 조각되는 八部衆의 하나이며, 흔히 팔이 여섯인 阿修羅 옆에 자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팔부중이란 어떤 神이며 癸酉銘像의 정확한 명칭은 무엇일까?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八部衆은 佛法을 수호하는 神將인 佛陀八部衆과 四天王의 亞將인 四天王八部衆의 두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이래 八部衆이 조각되어 왔는데, 주로 佛陀八部衆이 유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⁸⁾. 國內外의 八部衆조각 가운데 圖像의 특징이 비교적 명확한 것은 석굴암과 日本 奈良의 興福寺塑造八部衆立像을 꼽을 수 있다. 특히 興福寺塑造八部衆은 各各의 명칭이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 그 가운데 머리에 獅子를 쓰고 감옷을 입은 神將(圖 7)은 건달바(Gandharva)로 통칭되고 있다¹⁹⁾.

건달바는 여러 경전에 등장하는데 보통 八部衆의 하나로 佛說法會에 나타나 帝釋天의 雅樂을 담당한다고 한다. 그 밖에 印度神話에서는 건달바가 하늘(天)의 秘密과 眞實을 알아 顯示하고 星座를 調整한다고 전한다²⁰⁾. 이것은 本稿의 癸酉銘神將像을 造像發願했던 施主者가 미래를 점치는 卜者였다는 사실과 관련시켜 생각해볼 때 매우 주목되는 점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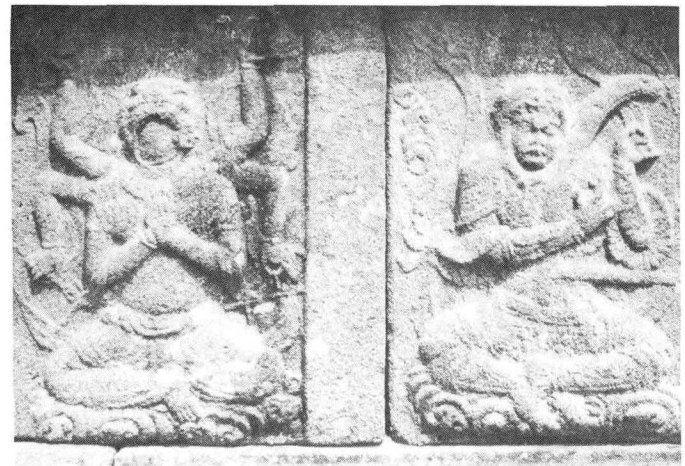
癸酉銘像과 같은 立像의 八部衆은 石窟庵 조각외에도 慶北 英陽郡 化川面과 縣一洞 三層石塔의 八部衆浮彫를 찾아볼 수 있다. 塔의 基壇에 주로 坐像의 형태로만 표현되던 팔부중이 좌상의 편안한 자세에서 경직된 直立型八部衆으로 변했을 뿐 아니라 체구 또한 왜소하여 癸酉銘像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엿보인다.

高麗初期에 建立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普願寺址五層石塔의 八部衆浮彫(圖 5)로 미루어 통일신라시대 이래 내려온 八部衆의 圖像의 傳統이 고려초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되어 왔을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고려시대 탐가온데 건립연대가 확실한 開心寺址五層石塔(圖 8)이나 居頤

圖 3. 華嚴寺四獅子三層石塔의 獅子, 통일신라시대, 전남 구례



圖 4. 陳田寺址三層石塔의 八部衆(部分) 통일신라시대, 강원도 양양



寺圓空國師浮屠(圖 9)의 팔부중을 보면 감옷을 입고 투구는 썼지만 신장상이 지닌 상징적 특징은 거의 표현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중 조성시기가 八年 빠른 開心寺석탑의 경우에는, 한 신장이 목에 龍을 감고 있고, 둥근 북방식 투구를 쓴 다른 신장은 악기를 들고 있어서 도상적 전통의 잔영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一세기부터는 塔부조에서 팔부신장의 圖像이 그다지 지켜지지 못했던 것으로 짐작되며 각각의 팔부중이 감옷을 입고 투구를 쓴 평범한 신장의 모습으로만 표현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圖 5. 普願寺址五層石塔의 八部衆(部分), 고려시대, 충남 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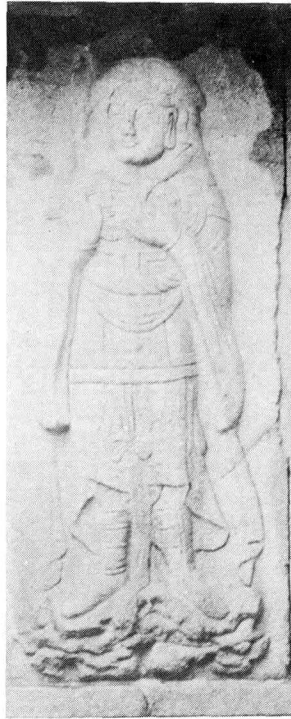


圖 6. 石窟庵八部衆, 통일신라시대, 경북 월성

圖 7. 興福寺塑造八部衆의 乾闥婆, 奈良時代, 日本奈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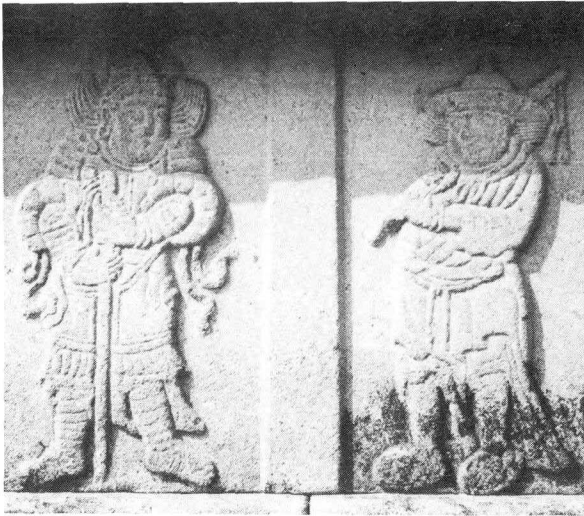


圖 8. 開心寺址五層石塔의 八部衆, 고려시대 1010年, 경북 예천



圖 9. 居頓寺 圓空國師浮屠의 八部衆, 고려시대, 1018年. 서울 경북궁



圖 10. 磨崖菩薩半跏像 高麗時代, 981年. 경기도 이천



圖 11. 磨崖觀音菩薩坐像 高麗時代, 985年. 경북 고령



圖 12. 金銅菩薩立像, 高麗시대, 國立中央博物館藏

四, 양식적 특징과 조성연대

癸酉銘神將立像은 크기가 작은 像일 뿐 아니라 時代상이나 보살상이 아닌 신장상이므로 前代의 조각이 지닌 웅대함을 모방하기 위한 윤색이나 꾸밈 등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시의 조각 기법이 충실히 반영되었을 것이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양식 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前章에서 잠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로 이 신장상은 조각기법을 위주로 제작되었다. 즉, 몸에 걸친 갑옷의 부늬를 비롯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얼굴까지도 눈과 눈썹 등이 선각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므로 자연히 조각이 평면적으로 보이며 마치 浮彫와 같은 느낌을 주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조각의 측면을 보아도 頭部를 제외하고는 그 두께가 얇아 부피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이러한 線刻의 기법은 고려시대의 조각이 기술면에서 퇴보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부조나 小像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같다. 그 예로서 廣州 校里 마애약사여래좌상(九七七年)과 利川 長岩里 磨崖半跏像(圖 10) 그리고 고령 개포동 마애관음보살좌상(圖 11)은 작품의 수준이 서로 현격하게 차이나지만 모두 통일신라시대의 깊이 있는 부조와는 판이한 평면적인 작품으로서 음각 및 양각의 선들로만 새

겨져 있어 조각기술이 변천하였음을 느낄 수 있다.

癸酉銘신장상과 비교될 수 있는 고려시대 조각은 국립중앙박물관의 銅造菩薩像을 비롯하여 四~五軀 散見된다. 먼저 국립중앙박물관의 등조보살상(圖 12)은 半開한 눈꼬리가 길어 신장상의 커다란 눈과 연결되며 코가 길고 인중이 짧은 점을 비롯해서 작은 입, 탐스러운 턱, 이마에 촘촘히 음각된 앞머리카지도 유사하다. 이 像이 지닌 顔面의 특징은 광추전불을 위시하여 고려초에 조성되었다고 추정되는 塞松寺址석조보살좌상과 신부사 및 월정사 석조보살좌상(圖 13)들이 보여주는 고려시대 조각의 전형적인 얼굴모습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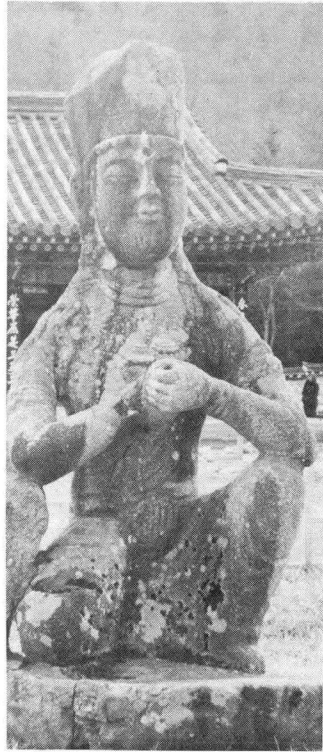
또 다른 국립중앙박물관의 금동보살입상(圖 14)은 一四cm 정도되는 小像인데 얼굴이 동그랗고 통통하며 비교적 사실적으로 조각된 것에 비해 裙衣는 흠을 관 뜻이 선각되어 있어 계유명신장상과 비슷한 방법으로 제작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밖의 예로는 太平二年(一〇二二)銘 사자빈신사지석탑의 石像이 있다(圖 15)。이 像은 두건을 쓰고 있어 지장보살처럼 보이나 手印은 비로자나불의 智拳印을 結하여 圖像이 분명하지 않은 조각이다. 이 像역시 원각상으로서 전체적으로 量感이 있으나 배와 무릎의 움주름은 음각되었고 뒷면에 보이는 두건의 주름도 中央부분이 일부 선각되었다. 그리고 文宗年間(一〇四七~一〇八七年)에 창건되었다고 전하는 萬福寺의 石造如來立像(圖 16)은 조각의 규모도 크고 제작시기도 추정할 수 있어



圖 14. 金銅菩薩坐像, 고려시대, 國立中央博物館藏

圖 13. 月精寺石造菩薩坐像 高 180 cm, 고려시대,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



중요한 작품으로 꼽힌다. 이像是佛身과 光背가 붙어 있는데, 頭部는 입체감있게 丸彫되었고 尊顏의 표정도 은화한 古代의 佛顏을 연상케 한다. 반면에 身部는 위축되고 평면적으로 왜소해져서 조각측면의 두께가 얇을 뿐 아니라, 특히 大衣의 옷주름을 모두 음각으로 처리한 점이 癸酉銘神將像과相通되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이 외에도 막연히 一世紀경의 제작이라고 짐작되어온 일련의 철불 좌상들이 구립중앙박물관과 경복궁 회랑에 진열되어 있는데, 이 불상들의 눈과 삼도 및의 습표현에서 칼로 흠을 파낸 듯한 느낌을 주는 신각 기법이 일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불상제작기법에서 신각을 하는 방법은 前代인 통일신라시대에도 小像이나 지방작품에서 흔히 쓰였던 것이며 특히 小금동불의 경우에 옷주름



圖 15. 獅子頻迅寺址石塔의 人物坐像, 고려시대 1022年, 충북 제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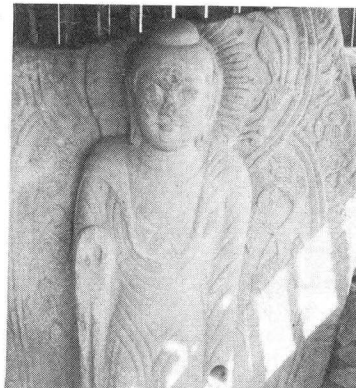


圖 16. 萬福寺址石佛立像, 現高 2m, 고려시대, 전북 남원

을 표현할 때 등종종 보이는데, 대체로 극히 지엽적인 부분을 처리할 경우에만 쓰여지고 상 전체를 평면적으로 신각한 예는 거의 찾을 수 없는 것 같다.

樣式的으로 비교가 될 만한 紀年銘 조각이 희귀하기 때문에 癸酉銘神將像의 제작년도를 단정짓기 어렵지만 대략 像 자체가 지닌 조각적 특징과 더불어 고려시대 一世紀경부터 塔이나 부도에서 八部衆의 圖像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一〇세기 후반에서 一世紀 전 반경으로 그 시기를 좁혀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 기간중에서 癸酉銘神將像의 銘文에 나타난 地名인 白州가 이 이름으로 불려졌던 시기는 고려초부터 顯宗九年(一〇一八년)까지이므로 이 신각상의 제작연대는 九七三年 癸酉年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고려초기의 드문 在銘彫刻 중에 하나인 癸酉銘靑銅神將立像에 대해 살펴 보았다. 앞에서 論及한 바와 같이, 이 像은 九七三年에 順戊라는 白州의 卜者에 의해 發願·造成된 八部衆(진달바)像으로 추정된다. 이 像의 제작년도로 생각되는 九七三年은 光宗二三年으로 光宗의 在位期間 중에서도 말엽에 해당된다. 이 時期는 그 동안 강화된 전체왕권에 눌려 음성적으로만 힘을 질러오던 호족세력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낼 수 있을만큼 신장되어 왕권에 제약을 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고 생각되는 때이다^⑩. 따라서 光宗의 왕권강화정책의 일환으로 등용되었던 人物이나 왕실측근세력과 그 추종자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불안했던 시기에 王의 天壽를 위해 造像을 했다면 八部神將의 신비롭고 주술적인 위신력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보려는 간절한 기원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 신장상은 八部衆의 하나이므로 順戊한 사람에 의해 한 軀만 조성되었다기 보다는 그와 뜻을 같이하는 여덟명의 발원자가 각기 한 구씩 만들도록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造像背景을 추측해 보거나 像 자체가 지닌 섬세한 조각적 특징으로 미루어 이 像은 當代의 수준 높은 彫刻匠人에 의해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像은 당시의 불상양식과 기법을 반영해 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록 小像이지만 제작년대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양식적으로도 基準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그리고 이 像이 지닌 조각기법상의 특징은 一世紀의 작품이라고 알려진 萬福寺址石佛立像에서도 나타나므로 당시에 유행했던 조각기법의 흐름을 알려주는 귀중한 작품으로 믿어진다.

[註]

① 朴敬源, 「晉陽郡 鳴石面出土 有銘十二支神將立像」, 『考古美術』 一 권四호

(一九六〇, 一), pp. 1~3.

② 李基白, 『韓國史新論(改正版)』(潮閣, 一九七六), p. 129.

③ 金杜珍, 「高麗光宗代의 專制政權과 豪族」, 『韓國學報』 一五(一志社, 一九七九), pp. 73~76 참조.

④ 金龍善, 「光宗의 改革과 歸法寺」, 『高麗光宗研究』(潮閣, 一九八一), pp. 102~104 참조.

⑤ 文明大, 「高麗佛畫의 造成背景과 內容」, 『高麗佛畫(韓國의 美)』(中央日報·季刊美術, 一九八一), p. 207 참조.

⑥ 이 銘文은 朴敬源先生의 논문에 실린 것을 토대로 필자가 조사하여 작성하였다. 해당상 달라진 점은 명문의 첫 줄인데, 필자는 첫자를 「白」字로 보았고 둘째자인 「州」 밑의 열인 두 개의 가로줄은 명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생략했다.

⑦ 『高麗史』 卷五八「志」 卷第一二地理三.

⑧ 『高麗史』 高麗世系六 참조. 朴漢高氏는 「王建世系의 貿易活動에 對하여」 그들의 出身究明을 中心으로 「『史叢』 一〇輯, 一九六五, 一一」에서, 白州의 正朝인 劉相曉는 白州의 行政을 左右했던 勢力家로 보이며 이들이 永安城을 쌓은 이유는 作帝建이 西海龍女를 娶해왔던 때문이라기 보다는 作帝建이 海外貿易에서 크게 成功하여 막대한 財富을 벌고 이 地方 最大의 세력가로 등장하였기 때문인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밖에 李樹健, 「高麗時代土姓研究(上)」, 『亞細亞學報』 二輯(一九七六, 一), p. 2에 의하면 王建의 先世는 예성강을 중심으로 한 해상세력과 平州, 貞州, 白州등지에 지방호족과 연결된 강력한 開城土姓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⑨ 『高麗史』 卷七三「志」 卷第二七 選舉一三 및 任東權, 「高麗時代의 占卜俗」, 『李弘植博士回甲紀念韓國史學論叢』(一九六九, 一), p. 232 참조.

⑩ 『高麗史』 卷一三「列傳」第三六 嬖幸一.

⑪ 『高麗史』 卷一百二十三「列傳」卷第三十五 方技條.

⑫ 朴敬源, 앞의 논문, p. 5.

⑬ 張忠植, 「統一新羅石塔 浮彫像의 研究」, 『考古美術』 一五四·一五五(一九八二), p. 100.

⑭ 杉山二郎編, 『天平彫刻』 『日本の美術』 第十五號(東京, 至文堂, 一九六七, 七), p. 40 참조. 진달바의 일반인적 圖像의 特徵으로서 獅子冠을 꼽을 수 있다(佐和隆, 『佛像圖典』, 東京, 吉川弘文館, p. 123)

⑮ 望月信亨, 『望月佛敎大辭典』(增訂版) 第一卷(東京, 世界聖典刊行協會, pp. 979~980 참조.

⑯ 拙稿, 「高麗初期 溟州地方의 石造菩薩像에 대한 研究」, 『佛敎美術』 五(東國大學校博物館, 一九八〇), p. 75 참조.

⑰ 金杜珍, 「高麗光宗代의 法眼宗의 登場과 그 性格」, 『韓國史學』 四(韓國精神文化研究院, 一九八三, 四), p. 50.

〈文教部 藝術院 研究員〉